

日本の 文化的 特徴이 基督教 成長에 미친 影響研究

林 永彦*

(e-mail : yimye@hanmail.net)

目 次

- | | |
|--------------------------|---------------------------|
| I. 문제제기 | IV.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 기독교 성장 분석 |
| II. 이론적 검토 |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분석 |
| 1. 해방 전후 한일기독교의 교류와 성장과정 | 2. 일본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성장 사례연구 |
| 2. 일본에서 한국계 개신교 활동 | V. 결론 |
| 3.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 기독교 정체 | |
| III. 연구방법 | |
-

I. 문제제기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전파는 가톨릭 예수회 소속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1549년 일본에 전파한 이래 약 460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의 기독교인 수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개신교가 약 62만명, 가톨릭이 약 48만명으로 1억2천7백만 일본인구의 0.8%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교회수도 약 8천개로 한국교회가 약 5만개, 교회신자수가 약 1, 200만명을 헤아릴 정도로 급성장 것에 비해 성장속도가 매우 정체되어있다¹⁾.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약 100년으로 크리스천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개신교가 약 18.3%, 가톨릭이 약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크리스타新聞社編 『キリスト教年鑑2008』(キリスト教新聞社、2008)、p.76

11.7%를 포함하고 있다²⁾. 한국에서의 개신교의 급성장과 대형교회가 날로 증가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본선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왔다. 2005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선교사 파견현황은 168개국에 19,41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에만도 1,260명이 활약하고 있다³⁾.

한일양국 기독교 전파영향에 관한 연구는 1882년 신사유람단으로 도일한 이수정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성서번역을 전개하였으며 이것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시대의 영향으로 한국으로부터 일본 기독교전파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1980년 이후 한국인들이 동경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도쿄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신자수가 1,000명 이상에 달하는 한국계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교회의 실태는 신자수가 30명 미만의 미자립 소형교회가 대부분이고 이들 교회의 실상도 구성원이 한국인 중심의 교회가 대부분이고 일본인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인 대상으로 선교에 힘쓰고 있지만 일본인 기독교인 수는 해방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본 기독교의 정체현상에 대하여 전통적인 단일민족 중심의 천황제, 혹은 한일 문화적 차이나 언어장벽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적 특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해방 전후 일본교계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된 청빈사상과 질적성장중시 라는 문화적 특성이 일본 기독교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일간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일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해방 전후 한일기독교의 교류와 성장과정

한일기독교 교류의 역사는 한일합병기인 1910년 조선에서 100만인 전도를 목적으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신자수는 20만명 정도로 대대적인 선교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선교활동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는 대규모 군중집회, 문서전도,

2) 韓國世界宣敎協議會 (Korea World Mission Association : KWMA) 에서 2008年 10月 1日에 實施한 설문조사 참조.

3)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韓國統計庁 통계자료 참고.

개별방문 등이었다. 당시 본래의 목표인 100만인 전도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전도활동을 계기로 조선의 일반 대중에게 기독교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⁴⁾.

일제 식민지시대 전국적으로 발생한 1919년 3·1 독립운동은 크리스천들이 주도하는 운동이었다. 일본 헌병에 의해 2,000명 이상의 신도가 희생당했으며 2,033명이 투옥기소, 혹은 47개 교회가 파괴되었다⁵⁾. 당시 3·1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유관순(1902-1920) 역시 이화학당(현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천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41년 시작된 태평양 전쟁 중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는데 당시 투옥된 크리스천만 하더라도 교회지도자가 약 2,000명, 옥중사망자가 50명에 달하였고 신학교 등 200여개 교회가 폐쇄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내에서는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대립하였지만 조선의 기독교는 일본제국주의와 대립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강화하였다.

재일조선인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1908년 도쿄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크리스천들이 교회설립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여 조선 장로회에 선교사파견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현존하는 재일대한기독교단의 창시였다. 재일조선인 교회는 초기 한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선교하였지만 1930년~40년대 일본에서 조선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대상의 전도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전도지역의 범위도 도쿄에서 일본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지역적 범위로는 고베(1921년), 오사카(1923년), 교토(1925년), 나고야(1928년) 등지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1931년에는 큐슈, 고베, 오사카, 교토, 나고야, 도쿄, 홋카이도 등 7개 지역에 재일대한기독교단의 교회 또는 전도소가 세워지기에 이르렀다⁶⁾. 그러나 1941년 6월 일본기독교단 설립시에는 당연히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통합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전시 하에서는 예배의 감시, 일본어강제사용, 치안유지법위반적용 등에 의해 교회지도자의 연행 및 구금 등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1945년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면서 무조건 항복에 동의하였다. 전쟁에 패함에 따라 일본군부가 추진해온 천황중심의 국가체제는 붕괴하였다. 1945년 12월에는 '종교단체법'이 폐지되었고 1946년 신년에는 천황 스스로가 신성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이 발표되었다. 다음해 11월에 공포된 일본헌법에서는 '무제한'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현인신(現人神)으로서 숭배와 존경의 대상

4) 朴正義 (1993) 『キリスト教受容における日韓比較』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p.17

5) 앞의 논문 p.18

6) 「KCCJ의 발자취」 재일대한기독교회 The Christian Church in Japan 홈페이지 (<http://kccj.net/intro/history.html>)

이었던 천황이 인간선언을 함으로서 일본인의 가치관의 근본도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본국민의 불안을 반영하여 다양한 종교가 앞을 다투어 교세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신들의 러시아워’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종교가 성행하였다⁷⁾.

또한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어디에서나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기독교도 초기에는 이러한 기세에 편승하였다. 일본전국에서 집단개종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와가야마현 나가야마지 마을에서는 1950년 류진(龍神)가톨릭교회가 세워졌으며 이후 집단세례를 받아 약 15년간 마을 전체 인구 약 1,300명 가운데 61.5%에 해당하는 약 800명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⁸⁾.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자 교세의 확장은 주춤하였다. 1959년에는 기독교 관련자 및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정체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정체의 원인으로서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인 사회 구조적 특징이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기독교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덧붙여서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신자들의 눈높이 수준과 낮은 시선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⁹⁾.

일본 기독교계의 이러한 신자수의 정체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교계자체의 분열도 가속화되었다. 특히 개신교는 해방 이전 34개 교파의 합동에 의해 일본기독교단을 설립했지만 해방 이후 다시 분열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동양선교회 기요메교회, 일본어셈블리교회, 성공회, 일본백티스트연맹, 일본복음루터교회, 일본홀리니스교회, 기독교회, 일본나사렛교단, 일본자유메소디스트교회, 구세군 등과 같은 소수파들이 1953년까지 각각 분리 독립하였다¹⁰⁾.

<표 1> 일본 기독교 인구의 추이(1948년~1990년)

연도	기독교	카톨릭	정교	합계	성직자	총계	인구비(%)
1948	199,026	111,209	14,063	324,298	6,789	331,087	0.423
1952	207,077	141,638	32,889	381,604	7,727	389,331	0.461
1954	233,394	185,284	33,173	451,851	7,837	459,688	0.528
1956	257,650	212,321	33,911	503,508	12,063	515,571	0.578
1958	297,650	227,063	34,391	559,104	6,524	565,628	0.622
1960	340,583	266,608	35,293	642,484	12,671	655,155	0.707

7) 末木文義士 (2006) 『日本宗教史』岩波書店、p.219

8) 鈴木範久 (2001) 『日本キリスト教史物語』教文館、pp.191-192

9) 위의 책, pp.194-196

10) 菊地伸二·菊地栄三 (2005) 『キリスト教史』教文館、p.482

1962	360,301	287,943	35,656	683,900	14,244	698,144	0.740
1964	339,287	296,617	9,215	645,119	14,026	659,145	0.685
1968	399,155	323,880	9,385	732,420	14,5581	747,001	0.760
1970	454,297	337,243	9,549	801,089	17,744	818,833	0.799
1972	460,693	346,818	24,320	831,831	18,863	850,694	0.809
1974	460,624	352,103	24,502	837,229	16,417	853,646	0.782
1976	478,384	363,273	25,283	866,940	17,593	884,533	0.790
1978	454,112	375,533	25,073	854,718	18,072	872,790	0.764
1980	472,680	387,204	25,199	885,083	18,672	903,755	0.778
1982	485,988	396,416	25,161	907,565	18,234	925,799	0.785
1984	494,926	408,051	25,309	928,286	17,500	945,786	0.791
1986	495,203	416,481	25,654	937,338	16,894	954,232	0.788
1988	535,071	428,423	25,729	989,223	19,431	1,008,654	0.825
1990	546,583	412,023	25,803	984,409	19,009	1,003,418	0.814

주)鈴木範久 (2001) 『日本キリスト教史物語』 教文館、pp.194-196

특히 일본기독교단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1951년 일본전국 39개 교회가 이탈하여 일본기독교회를 설립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기독교회의 분열 이유로서는 ‘일본기독교단은 신앙고백의 일치 없이 모든 교파가 합동으로 전시체제 하의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구일본기독교계 모든 교회가 신앙과 제도를 교류하는 가운데 함께 전도하며 교회를 형성하기 원했으나 이러한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교회의 이탈은 교회에 대한 이해의 차이, 또는 외국인선교사에 대한 의존적 체질에의 반발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¹¹⁾. 여기에서 신앙고백이라는 것은 교파의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규범과 같은 것으로 타 교회에서 신자를 받아들이거나 세례를 받을 때 그 신자에게 소속교파의 신앙고백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키며 쌍방의 신앙고백을 비교하면 언어표현이나 순번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았다.

<표 2> 일본 재류자격(종교)별 신규입국자 추이¹²⁾ (단위: 명)

재류자격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율)
재류자격별 신규입국자(종교)	927	971	846 (-12.9)	897	985	828 (-15.9)
재류자격별	4,732	4,699	4,588	4,654	4,732	

11) 菊地伸二·菊地栄三 (2005) p.482

12) <http://www.moj.go.jp/NYUKAN/nyukan78-2.pdf> (검색일 2009년 7월 24일) 참조.

외국인등록자수(종교)					
유학생에서 취업자격 변경(종교)	6	12	12	13	15

<표 3> 일본 기독교 인수 추이

(단위: 명) 출처: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독교	592,934 (0.47)	617,490 (0.48)	618,089 (0.48)	617,053 (0.48)	625,421 (0.49)	612,622 (0.48)	618,259 (0.48)	617,457 (0.48)
카톨릭	441,772	444,240	473,807	477,624	476,013	478,644	481,536	482,518
정교	25,713	25,955	25,935	25,916	25,929	25,929	25,929	25,929
합계	1,060,419	1,087,685	1,117,831	1,120,593	1,127,363	1,117,195	1,125,724	1,125,904
교직자	10,896	11,045	11,336	11,751	11,389	11,623	12,988	12,727
총합계	1,071,315	1,098,730	1,129,167	1,132,444	1,138,752	1,128,818	1,138,712	1,138,631
인구수	127,291,000	127,435,000	127,619,000	127,687,000	127,768,000	127,770,000	127,771,000	127,692,000
인구비(%)	0.84	0.86	0.88	0.89	0.89	0.88	0.89	0.89

キリスト新聞社編『キリスト教年鑑2008』(キリスト教新聞社、2008)、p.76

해방이후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해오던 일본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화의 추세로 외국인들의 거주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선교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도 급증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등록자 수에서 선교사 수를 추론해보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규입국자 수에서도 약간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2005년도와 2008년도는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제불황과 엔고현상으로 일본에서의 선교활동이 어려워 입국자 수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종교'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선교사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자수는 해방 전후와 최근 통계수치를 비교하면 거의 변함없이 0.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전쟁 후 한국에서는 특히 미국으로부터 물자원조창구와 배급의 거점으로서 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교회는 풍요와 선진구미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5년까지 교회수도 한국전쟁 전의 2배인 2,000개소로 증가하였다. 한국개신교는 물론 가톨릭에 한정되었지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서 활약하면서 대중에게 교세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특징이었다. 교회신자수도 1970년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서울여의도에서 100만명 규모의 집회가 개최될 정도로 확장되었다. 해외로의 선교사 파

전도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19,413명의 선교사가 168개국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의 파견규모가 큰 것이었다¹³⁾.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계교회(재일한국·조선인 기독교회 포함) 및 일본교회의 선교활동에 한정하여 정체현상과 협력방법에 대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2. 일본에서의 한국계 개신교 활동

해방 이후 일본에 머물게 된 성직자 및 기독교인들은 1945년 11월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를 설립하여 일본기독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현재 한국의 6개 교단(대한예수교 통합합동대신, 기독교장로회, 대한감리회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기독교단이나 일본 기독교회 등과 선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의 가장 큰 활동 중의 하나는 각종 인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9년 제15차 교단정기총회에서 ‘북한송환에 반대하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1974년에는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재일조선인의 인권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일한인사회의 큰 과장을 일으킨 ‘지문날인제도’에서도 1984년에는 ‘재일본대한기독교회 지문거부실행위원회’를 결성한 후 1985년에는 ‘일본기독교단과 합동으로 ‘지문날인제도철폐요구서명’을 받아 8만명 서명서를 일본법무성에 제출한 바 있다. 1999년에는 교단의 정식명칭을 ‘재일본대한기독교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술한 재일한인 교회의 인권활동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원래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일기독교회는 민족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민족적 색채가 강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교회 내에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포용하지 못한 이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¹⁴⁾. 또한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오랜 이민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소수민족 집단인 재일한인들은 오히려 모국의 문화와 전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기독교와 정면충돌하는 양상도 가끔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인교회는 이민사회에서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재일한인들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큰 과제를 안고 있다. 2008년 현재 재일한인 크리스천 수는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자수가 6,077명, 교회 수 79개, 전도소 15개로 알려져 있다¹⁵⁾.

13)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韓国統計庁より

14) 崔吉城 (1995) 「在日韓国キリスト教の普遍性と民族性」 『中部大学国際関係学部紀要14』 中部大学、p.39-48

뉴커머가 중심인 한국계교회가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며 현재 한국인 선교사는 약 1,300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크리스천의 수는 불명확하지만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영주자를 제외한 일본체류한국인은 140,000명으로 그 중 크리스천을 단순히 30%정도 추정할 경우 약 4만명의 한국인 크리스천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 된다.¹⁶⁾ 최근에는 '러브소나타'와 같이 한일합동으로 대규모 전도집회가 열리고 여기에 한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류를 통한 선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시도한 적이 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본에 거주하는 크리스천 수는 가톨릭 482,518명, 개신교 617,457명, 정교회 25,929명을 포함해도 1,125,904명으로 총인구 12,000만명의 약 0.8%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인 크리스천 수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양적성장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질적성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와 함께 실제로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크리스천 수, 혹은 성서나 기독교에 대한 일본인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일본사회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 기독교 정체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교회는 해방 이후 줄곧 정체되어 왔으며 소형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도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교회의 규모는 1~10명의 교회가 17%, 11~30명의 교회가 41.3%로 신자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교회가 전체 67%(1~30명 교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31~50명 교회는 17.5%, 51~99명의 교회는 11%로, 전체교회의 91%가 100명 미만의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

<표 4> 한일기독교의 문화적 특성 비교

구분	한국교회	일본교회
목적	전도중심 전도명령(마 28:19-20)	사회적 책임 문화명령(창: 1:28)
생활중심	교회운동 중심 교회중심 생활	가정과 사회 사회생활중심
교회활동	활동과 기도 강조	교육, 생각하는 교회

15) キリスト教新聞社編 (2007) 『キリスト教年鑑』 教文館, pp.1390-1391

16) 『平成20年版「出入国管理」日本語版』 法務省出入管理局ホームページ(<http://www.moj.go.jp/NYUKAN/nyukan78-1.pdf>) p.98참조.

17) 미와노부오(1995) 「일본인의 의식과 제한 일본인 전도」 『상담과 선교』 p.47참조.

목사지위	지도자의 권위 높은 지위, 급료	사회자, 상담자 낮은 지위, 급료
교회성장	양적성장 중시 회심자 중심 실증주의	질적성장 중시 결과에 무관심(과정중시) 정신주의(우치무라 간조 영향)
전도대상방법	일반시민	생활과 증거의 전도(합리적 측면 강조)
교회조직	권위적	민주적

출처: 미와노부오(p.47)

그렇다면 일본교회는 해방 전후 왜 크리스천 수가 정체되어 왔고 현재와 같은 소규모 중심 교회가 형성되었는가? 이와 같은 일본기독교 정체원인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선교사 추방령 이후 약 300년간 지속된 기독교 탄압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독교 탄압정책의 주요 내용은 종문개역(혼인, 이사, 여행, 취직시 이동증명서), 데라우케제도(절에 소속되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증명서 발급), 후미에(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증명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의 상이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행위), 5인조제도(농민을 다섯 가옥이 한조가 되어 감시), 기리시단 유족조사(무라하치부-다른 사람과 교류금지)등 이었다¹⁸⁾.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표방해 온 천황제 중심의 신도국교화 또한 기독교의 유일신인 기본교리와 배치된다. 일본신도는 다신교와 범신론의 영향을 받아 800만신의 존재를 주장하며 유일신을 정면 부정한다. 예를 들면 '후지산 정상 정복의 길도 여러 갈래가 있으며 각기 정복하는 길은 달라도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이다. 따라서 일본인의 기독교에 대한 관념은 여러 종교 중의 하나의 종교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일간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교회성장에 대한 생각도 교회의 질적성장 중시, 양적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등 이러한 사상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해방이후 일본교계를 이끌어온 정신적 지주인 우치무라 간조, 야마무로 군페이, 카가와 도요히코 등의 청빈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교회유형

일본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1980년 이후 한국인의 도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뉴커머 사회가 도교를 중심으로 급격히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8) 앞의 논문, 미와노부오(1995) 참조

2003년 한국드라마 '겨울소나타'가 일본 NHK에서 방영되면서 한류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한류 붐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도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류 붐을 틈타 한국교회의 일본선교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일본에 존재하는 한국계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올드커머가 중심인 약 100년의 선교 역사를 자랑하는 제일대한기독교교회이며, 또 하나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교단에서 파송되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한 뉴커머 중심의 한국계 교회이다. 그리고 신자가 일본인 중심인 일본계 교회이다.

현재 올드커머 중심교회인 제일대한기독교단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약 100개로 일본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단의 역사는 1908년 도쿄 YMCA에서 모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이래 동경교회와 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가 설립되었으며 일본에서 식민지 후손으로 민족차별을 당해야 했던 재일한인의 인권활동과 권리옹호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예를 들면 지문날인제도 철폐,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 폐지, 재입국 제도의 철폐 등 재일한인의 권리옹호와 차별에 맞서 활동하였다. 이 교단의 전체 교회 수는 약 100여개에 달하지만 세례교인은 약 7천명으로 소규모 그룹중심의 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한국계뉴커머 중심교회는 A교회가 대표적이다. 1988년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1997년 예배인원이 약 1천명을 돌파하였고 일본전역에 개척교회를 설립해왔다. 또한 도쿄 가부기초에 개척한 B교회도 급속히 성장하여 교인이 1천명을 돌파하였으며 일본전역에 지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일본 전체 기독교인 수가 0.8%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비하면 1980년대 이후 뉴커머한국인에 의한 일본선교는 대단히 활발히 전개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한류 붐에 의해 한일간 선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문화의 특성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2009년 1월부터 4월30일까지 일본현지에서 한국계 교회와 일본계 교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일본현지 목사와 선교사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쿄와 주변도시, 그리고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총 178부가 수집되어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19) 田嶋淳子 (1998) 『世界都市・東京のアジア系移住者』学文社, pp.142-146

IV.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 기독교 성장분석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분석

먼저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속성과 분포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표 5>은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9.4%, 여성이 50.6%로 나타나 성별로 거의 대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결혼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독신이 43.8%, 결혼이 51.7%, 이혼이 4.5%로 나타났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일본이 70.8%, 한국이 25.8%, 중국이 0.6%, 재일동포가 1.7%, 기타국적이 1.1%로 상대적으로 일본인이 많았다. 현재 응답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는 종교법인 89.3%, 재단법인 8.4%, 기타가 2.3%이었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20대미만이 7.3%, 21~30세가 19.1%, 31~40세가 13.5%, 41~50세가 17.4%, 51~60세가 20.2%, 61~70세가 14.6%, 70세 이상이 7.9%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22.5%로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중고등학생이 3.9%, 대학 및 대학원생이 12.9%, 회사원이 28.7%, 자영업자가 10.1%, 자유업이 1.6%, 목사 및 선교사가 16.9%, 전업주부가 25.8%로 일본현지에서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며 현지에서 목회활동에 참여하는 목사와 선교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현지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주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사대상자들이 일본 현지에서의 선교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응답자들이 최근 일본 현지에서 교회 내의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귀하의 교회는 최근에 신자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뉴커머 교회보다는 일본현지 교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신자수 변화에 대부분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여기에서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본인 중심 교회의 경우 신자수의 감소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5> 설문조사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	비율	합계
성별	남성	88	49.4%	178(100)
	여성	90	50.6%	
결혼여부	독신	78	43.8%	178(100)
	기혼	92	51.7%	
	이혼	8	4.5%	
국적	일본	126	70.8%	178(100)
	한국	46	25.8%	
	중국	1	0.6%	
	재일동포	3	1.7%	
	기타국적	2	1.1%	
교회형태	종교법인	159	89.3%	178(100)
	재단법인	15	8.4	
	기타	4	2.3	
연령	20세 미만	13	7.3%	178(100)
	21~30세	34	19.1%	
	31~40세	24	13.5%	
	41~50세	31	17.4%	
	51~60세	36	20.2%	
	61~70세	26	14.6%	
	71세 이상	14	7.9%	
직업분포	중고등학생	7	3.9%	178(100)
	대학 및 대학원생	23	12.9%	
	회사원	51	28.7%	
	자영업	18	10.1%	
	자유업	3	1.6%	
	목사 및 선교사	30	16.9%	
	기타 전업주부	46	25.8%	

다음은 조사대상자들이 향후 교회성장에 대하여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귀하의 교회는 향후 신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71.8%가 향후 교회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6.6%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여전히 교회성장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현재 응답자의 소속교회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현지 선교활동에 상당히 기대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한일관계나 한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긍정적인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이 교회 내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선교활동에 대한 참여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귀하는 교회가 주최하는 교육이나 선교활동에 어느 정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참여하고 있다’가 43.1%,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가 24.2%로 합계 67.3%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일본인과 한국인 이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한국인신자들에게는 일본인 이미지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인 응답자들에게는 한국인 이미지에 대하여 ‘귀하는 일본인(한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일본인에 대하여 68.1%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이 56.1%, ‘매우 좋아한다.’가 39.3%로 한국인의 일본인 이미지보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선교방식에 대해서는 ‘흔히 한국인은 행동력이 뛰어나고 일본인은 냉철한 분석력과 자본력이 풍부하다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한국인은 전도에 힘쓰고 일본인은 전도의 방법에 대하여 조언하거나 금전적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일본선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의외로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56.9%, ‘보통’이 33.8%, ‘그렇게 생각한다.’가 9.4%로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일본인 응답자는 ‘전도와 선교에 경제력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히 잘라 말했다.

교회와 기업가와 관계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연구(田嶋、1998)에 의하면 한국인 기업가의 형성이 한국계 교회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조사에서는 ‘교회 신자들 중에 자영업자(기업가)들이 선교활동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일본인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6> 일본에서의 기독교의 성장과 변화

조사항목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교회변화	1(0.6)	40(24.4)	53(32.3)	61(37.2)	9(5.5)	164(100)
신자수 예상	0(0.0)	11(6.6)	36(21.6)	53(31.7)	67(40.1)	167(100)
교육 및 선교활동 참여	2(1.3)	7(4.6)	41(26.8)	66(43.1)	37(24.2)	153(100)
일본인 이미지	0(0.0)	1(2.3)	13(29.5)	24(54.5)	6(13.6)	44(100)

한국인 이미지	0(0.0)	5(3.8)	74(56.9)	30(23.1)	21(16.2)	130(100)
한일선교방식	29(18.1)	62(38.8)	54(33.8)	15(9.4)	0(0.0)	160(100)
기업가 선교활동	16(10.6)	36(23.8)	80(53.0)	19(12.6)	3(2.0)	151(100)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개개인의 문화적 특성이 교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최적화척도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7>은 교회신자들의 연령, 성별, 재직기간, 봉사시간, 정기헌금, 선교활동 참가, 교회성장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회성장도, 교회성장전망도, 교육 및 선교활동, 일본인이미지, 한국인이미지, 한일선교협력희망, 한일선교지원전망, 기업가의 선교활동 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재직기간, 봉사시간, 정기헌금, 선교활동여부, 교회성장여부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과 일본인이미지는 부의 관계로 연령이 낮은 한국인일수록 일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의 재직기간과 한일선교에 지원전망이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일수록 한일선교지원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시간은 교육 및 선교활동, 일본인이미지, 한일선교협력희망과 정의 관계로 교회에서 봉사시간이 길수록 교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및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한일선교협력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현지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크리스천일수록 일본인이미지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헌금은 교육 및 선교활동과 부의 관계, 한일선교지원과 정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정기헌금을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교회의 교육 및 선교활동에는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신에 선교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표 7> 응답자의 문화적 특성과 교회성장과의 상관분석

독립 종속	교회 성장도	교회성장 전망도	교육 및 선교활동	일본인 이미지	한국 인 이미 지	한일선 교협력 희망	한일선 교지원 전망	기업가 선교활 동
연령	-0.110	-0.083	-0.121	-0.178**	0.115	0.161	-0.228	-0.192
성별	-0.003	-0.023	0.032	-0.020	0.014	0.045	-0.056	-0.165

제직기간	-0.003	0.066	0.058	-0.053	0.193	-0.103	0.124*	0.083
봉사시간	0.048	0.049	0.160*	0.317***	-0.200	0.307***	0.169	-0.066
정기헌금	0.022	-0.027	-0.166*	0.072	-0.061	0.070	0.196*	0.111
선교활동 참가 여부	0.481***	0.466	0.566***	0.000	0.089	-0.101	0.142	0.394***
교회성장 여부	0.279*	0.305***	0.113	0.089	0.087	0.409**	-0.048	-0.080
F값	15.290** *	13.481** *	15.951** *	2.856***	1.775*	5.952***	1.848**	3.119***
R2	0.512	0.514	0.482	0.120	0.050	0.235	0.075	0.144

주) *p<.05, **p<0.01, ***p<.001

이러한 결과는 정기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직이거나 기업가들이 많아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자주 참석하지 못하지만 대신 선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선교활동참가여부가 교회성장, 교육 및 선교활동, 기업가 선교활동과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자가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 및 선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 내에서 기업가들이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회성장여부는 교회성장도, 교회성장전망도, 한일선교협력희망과 정의 관계로 일본 현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일수록 한일선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일본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성장 사례연구

1) 일본계 기독교의 정체와 한국계 기독교의 성장요인

다음은 인터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술한 청빈사상과 질적성장을 강조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 기독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경우 물질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개신교의 경우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⁰⁾. 루터의 종교개혁 안에는 개신교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근면 검소한 생활정신이라는 종교적 개념을 함유하고 있다. 소위 루터가 말

20) 막스베버, 김상희 옮김(2006)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풀빛

하는 소명의식이란 가톨릭 수도원의 금욕주의나 은둔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나 성공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교회나 목사가 부를 축적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해방이후 일본교계 지도자들의 정신적 세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번 인터뷰조사에서도 도쿄에 거주하는 R목사는 '일본교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기독교 박해,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제 신도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선교활동에 민감하다. 일본에서는 청빈, 한국에서는 청부라는 말이 있다. 일본들이 목사에게 청빈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전도자인 우치무라 간조, 야마무로 군페이, 카가와 도요히코의 영향이 크다. 아무리 일본이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목사들에게 청빈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라고 응답해 이러한 정신적 요구가 목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무사는 굶고도 배부른 채하며 이를 쬐신다.' 라는 말이 있다. 대성당의 감동보다는 오히려 작은 돌을 정성스럽게 모아 쌓은 성당에 일본인들은 감동한다.' 라고 말해 한국의 대형교회 중심의 교회성장론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일본인 H목사의 경우 '교회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성숙을 생각하는 선교도 중요하다. 한국선교사들을 보면 빠른 결과에 치중하다보니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인의 국민성을 생각해보면 관계전도, 즉 서로 친해져서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쌓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열정보다는 냉정한 의견조율과 대담함 보다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그리고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을 따지는 것이 일본인' 라고 하여 한국에서 강조하는 양적성장보다는 현지 일본의 문화적 특성인 절차와 형식에 따른 질적 성장을 강조하였다.

<표 8> 한국계 교회성장 요인

구분	빈도	%
선교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71	44.7
목사의 설교가 뛰어나기 때문에	5	3.1
한국어나 한국요리가 인기	2	1.3
신앙보다는 인간관계로 모임	21	13.2
한류와 같은 한국 붐 때문에	16	10.1
잘 모르겠다.	38	23.9
기타	6	3.8
합계	159	100

그러면 먼저 조사대상자들은 한국계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8>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왜 일본에서 한국계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44.7%가 '선교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여 한국계 교회의 일본에서의 활발한 전도활동이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뷰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지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순서나 절차보다는 양적성장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대담한 선교활동이 교회성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계속해서 '신앙보다는 인간관계로 모임'이 13.2%, '한류와 같은 한국 붐 때문에'가 10.1%,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뛰어나기 때문에'가 3.1%로 현지 이민자들이 생활의 안정과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교회를 활용한다는 종래 이민교회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한일 교회간 교류 및 협력활동 가능성

다음은 한일 교회간 교류 및 협력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최근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한일 교회간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연구결과는 전무하다. <표 9>는 응답자들에게 '귀하의 교회는 한일교류, 또는 현지단체와의 어떤 교류나 협력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한일교회교류 및 협력활동

구분	빈도	%
문화교류	33	21.4
인권활동	18	11.7
지역과 사회봉사활동	27	17.5
전도활동	41	26.6
기타	35	22.7
합계	154	100

한일 교회간 교류 및 협력활동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도활동'이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문화교류'가 21.4%,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17.5%, '인권활동'이 11.7%였다. 특히 현지교회와의 교류활동 중 '전도활동'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980년대 이후 도입한 뉴커머교회가 강하고 '인권활동'의 경우는 올드커머교회간의 교류협력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일본인 K목사는 한일교류활동의 가능성에 대하여 '일본기독교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흔히 대만교회는 찬양하는 교회,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일본교회는 신학하는 교회라고 한다. 행동력이 있는 한국인들이 전도를 하고, 섬세한 일본인들이 사람들을 케어 하고 양육한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풍토에 맞게 잘 소화하여 잘 정리된 교육내용이나 전도활동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일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각자의 달란트대로 얼마든지 한국과 일본교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3) 향후 일본에서의 선교활동 방향에 관한 전망

그러면 조사대상자들은 향후 한일연합 선교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응답자들에게 '한국 기독교계에서 일본 기독교계와 연합하여 일본선교를 위해 협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73.5%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일본인은 일본인이 전도해야 한다.'가 11.0%, '한국인은 전도방법으로 일본인은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가 11.0%로 대체로 한일 연합선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한일연합 선교활동 의향

구분	빈도	%
바람직하지 않다.	6	3.9
일본인은 일본인이 전도해야 한다.	17	11.0
한국인이 일본인을 전도해야 한다.	1	0.6
한국인은 전도방법으로 일본인은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7	11.0
바람직한 일이다.	114	73.5
합계	155	100

상기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일 연합선교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한일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 일본인 T목사는 '한국인은 전도방법으로 일본인은 물질적 지원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일본교회는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도 못하고 목사나 전도자는 아주 가난하며 헌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TV전도자가 일본 경제력에 의존하여 선교활동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으로 선교를 병자하여 경제력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품고 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후쿠오카에서 사역하는 G목사는 일본에서의 선교방향성에 대하여 ‘일본교회 스스로가 복음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같이 견디며 승리해 나가는 구체적인 현장 간증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 부족한 젊은 청년인재들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문화와 언어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일본교회와 함께 일하면서 살아있는 간증을 만들어 나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해 나갈 지도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나가노켄에서 사역하는 S목사의 경우 일본 선교방법에 대하여 ‘선교에 대한 열정과 영성은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일본인의 감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생적인 선교협력의 전략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민족끼리 상호존중하며 서로를 수용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가 가진 것을 베푸는 사랑이 필요하다. 자기 욕심으로 자신의 파견선교 기관의 또 하나의 지부를 일본에 만들려는 ‘자기 세력 부풀리기’식의 일본선교는 문화적 특성이 뿌리 깊은 일본의 영적 암흑을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강조하며 일본사회와 문화 속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아주 서서히 정착륙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표 11> 한일교회 연합이 바람직한 이유

구분항목	예	아니오	합계
한국인의 선교에 대한 정열과 행동력	29(21.5)	106(78.5)	135(100)
일본인의 치밀함	95(70.4)	40(29.6)	135(100)
한국인의 선교 노하우	105(77.8)	30(22.2)	135(100)
일본인의 경제력	113(83.7)	22(16.3)	135(100)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한일 연합선교가 바람직한 이유로서는 21.5%가 ‘한국인의 선교에 대한 정열과 행동력’을 꼽아 한국인의 전도활동 및 태도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선교 노하우’가 77.8%, ‘일본인의 치밀함’이 70.4%로 나타나 향후 한일 선교방향은 한국인의 선교 노하우를 일본인에게 전수하고 선교활동시 일본인의 치밀함을 적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일본선교에 대한 정열과 행동력에 대한 일본인들의 경계와 불신을 상쇄할 수 있는 차원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선교 열성에 대하여 일본인 K목사는 '예배나 기도드리는 방법, 찬양하는 방법, 노방전도 등은 일본인 신자들에게는 잘 훈련되지 않은 것이어서 프로그램은 좋지만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국인의 훌륭한 영성, 예배, 기도, 찬양, 노방 전도방법을 일본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일본인들은 성경대로의 삶을 중요시 하며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나 프로그램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인들이 찬양과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고 시끄럽다.' 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일 연합선교 활동에 대하여 H목사는 구체적으로 '일본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한 심령을 찾아 전도하는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한류 붐에 따른 문화전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 분위기를 일신하여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장단기적으로 일본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효과적이고 대규모적인 연합활동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4) 선교활동상의 문화적 갈등과 해결점

한국인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선교활동 중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인의 일본 선교상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표 12>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인이 선교에 대한 정열이나 행동력과 관련하여 '일본인의 예절을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5%, '일본어가 서투름'이 64.6%, '일본인의 생각이나 문화를 잘 모름'이 29.2%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일본인과의 접촉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3.4%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일본 선교활동시 일본인의 감성과 일본문화를 존중하는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일본인과의 접촉방법에서 일본인 목사 S씨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한국인은 일본인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인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에 호소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현세유익을 구하는 수준 낮은 설교가 되어버린다. 일본교회를 연구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나서 한국의 장점을 적용시킨다면 폭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기간 성장을 기대하지 말고 먼저 일본어 공부부터 철저히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표 12> 한국인의 일본 선교상의 문제점

구분항목	예	아니오	합계
일본인의 예절을 잘 모름	113(78.5)	31(21.5)	144(100)
일본어가 서투름	93(64.6)	51(35.4)	144(100)
일본인의 생각이나 문화를 잘 모름	42(29.2)	102(70.8)	144(100)
일본인과 접촉하는 방법 부족	121(83.4)	24(16.6)	145(100)

선교상의 문제점에서도 문화적 특성인 일본인의 예절에 관한 것인데 일본인 목사 Y씨는 '한국인은 일본인의 기본예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본인들은 무슨 일이든 서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허락을 받아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무조건 먼저 일을 저지르고 보는 성향이 강하다. 가령 선교사가 교단에 속해 있는 이상 먼저 교단의 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지 세계 어디든지 통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도 일본풍토에 맞는 기독교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라며 한일선교상 먼저 문화적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V. 결론

이 연구는 1980년 이후 일본에서 한국계교회의 성장에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일본계 교회의 정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타지마 준코(田嶋淳子, 1998)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한국교회의 약진은 초국가적인 글로벌 현상으로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대거 이동, 그리고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자영업자의 형성이 한인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통계자료들을 참고하면 해방이후 일본계 교회의 정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으로 일본교계의 수치상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상대적으로 일본교회의 쇠퇴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일본교회의 쇠퇴보다는 정체현상이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연구들이 제시한 일본

의 기독교 정체현상은 단일민족 중심의 천황제, 다신교주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의 선교사 추방령 이후 약 300년간 지속된 기독교 탄압정책 등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박해정책보다는 주로 해방 이후 일본교회의 문화적 특징인 일본교계 지도자의 청빈사상과 질적성장 중시가 일본인 크리스천 및 목회자의 사상, 그리고 일본 기독교의 정체로 이어졌으리라는 가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개인의 문화적 특성과 기독교 성장과의 회귀분석에서는 연령, 재직기간, 봉사시간, 정기헌금, 교회성장여부가 일본인의 이미지, 한일선교지원전망, 한일선교협력희망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은 젊은 청년들일수록 일본인 이미지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재직기간이 오래되고 정기헌금을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한일선교지원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봉사시간이 많은 신자일수록 한일선교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일교회 내의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문화적 특성의 차이인 봉사시간이나 정기헌금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의 정체와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조사결과에서는 해방이후 강조된 일본교계지도자의 청빈사상과 작은교회 중심의 질적성장 중시가 교회의 정체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일본인 목사의 경우 한국인 선교사의 양적성장 중시에 의한 선교열정과 적극적인 전도활동, 일본문화의 특성인 순서와 절차 무시, 타인 배려와 피해 안주기 등을 선교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꼽았지만 일본내 한국계 교회의 가장 큰 성장의 이유로서 한국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전도활동과 영성, 인텔리적인 설교 등을 들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이후 '탈아입구(脫亞入歐)'을 국가의 최대 지상과제로 삼았으며 이러한 목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시대 다문화공생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천황제를 주축으로 하는 단일민족사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문화를 숭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일본이 서양의 근본사상인 기독교 수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현상은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향후 연구과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일본에서는 서양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 사상의 수용보다는 일본의 전통사상을 강조하는 신흥종교의 성장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 한국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양적성장의 추구와는 달리 일본교계 지도자로서의 청빈한 삶과 정신세계강조, 질적성장의 추구가 일본교회의 정체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의 지나친 물질적 풍요와 양적성장 추구나 일본의 과도한 질적성장과 정신세계의

추구는 현재 양국의 처한 교회현실을 보더라도 많은 부작용과 정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교회 내의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문화적 감성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인의 영성을 활용할 수 있는 한일간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参考文献】

- 김남식(1995) 「國家神道の 危險性と 信教의 自由-韓國教會史에서의 警告-」 『상당과 선교』
- 이선복(2007) 「일본어를 이용한 대학채플의 개설가능성과 도입성과-부산 D대학의 사례와 설문조사반응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제21집
- 오영걸(2004) 「기독교대학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학생채플을 중심으로」 대전전문대학발표논문
- 미와노부오(1995) 「일본인의 의식과 재한 일본인 전도」 『상당과 선교』
- 막스베버, 김상희 옮김(2006)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풀빛
- 재일대한기독교회 「KCCJ의 발자취」 The Christian Church in Japan
홈페이지 (<http://kccj.net/intro/history.html>)
- 朴正義 (1993) 『キリスト教受容における日韓比較』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キリスト教新聞社編 (2007) 『キリスト教年鑑』 教文館
- キリスト教新聞社編 (2008) 『キリスト教年鑑』 教文館
- 田嶋淳子 (1998) 『世界都市・東京のアジア系移住者』 學文社
- 崔吉城 (1995) 「在日韓國キリスト教の普遍性と民族性」 『中部大學國際關係學部紀要14』 中部大學
- 末木文義士 (2006) 『日本宗教史』 岩波書店
- 鈴木範久 (2001) 『日本キリスト教史物語』 教文館
- 菊地伸二・菊地榮三 (2005) 『キリスト教史』 教文館
- 五野井隆史 (2006) 『日本キリスト教史』 吉川弘文館
- 土肥昭夫 (1987)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史論』 教文館
- 法務省出入管理局ホームページ 『平成20年版 「出入國管理」 日本語版』 (<http://www.moj.go.jp/NYUKAN/nyukan78-1.pdf>)
- 法務省出入管理局ホームページ <http://www.moj.go.jp/NYUKAN/nyukan78-2.pdf> (검색일 2009년 7월 24일)
- 韓國世界宣教協議會 (Korea World Mission Association : KWMA) 에서 2008年 10月 1日 에 實施한 설문조사
- 韓國統計廳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통계자료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解放前後なぜ日本教會在停滯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注目している。既存研究によれば、日本キリスト教の停滯の要因は単一民族中心の天皇制度、多神教主義、豊臣秀吉や徳川家康政權の宣教師追放令以降約300年間續けられたキリスト教弾壓政策などが挙げられる。しかし、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日本の伝統的な思想や迫害政策よりも主に解放前後日本教會の文化的な特徴である日本キリスト教リーダーたちの清貧思想と質的成長の強調が日本クリスチャン及び牧師たちの思想に影響を及ぼし、日本キリスト教の停滯に繋が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仮説に焦点を当てている。

まず、質問調査結果によれば応答者個々人の文化的な特徴とキリスト教の成長との回帰分析を行ったところ年齢、在職期間、奉仕時間、定期獻金、教會の成長可否などが日本人のイメージ、韓日宣教支援展望、韓日宣教協力希望などと相關関係であった。分析結果を見れば、日本教會内で活動している若い韓國人青年ほど日本人のイメージについて肯定的であった。また教會内で在職期間が長く、定期獻金の金額が大きい信者ほど韓日宣教支援を希望し、奉仕時間が長い信者ほど韓日宣教協力を積極的に希望していた。この結果は韓日教會内において基本的なクリスチャン個人の文化的特徴である奉仕時間や定期獻金に対する認識が韓日キリスト教の成長と停滯に影響を与えたと考えられる。

インタビュー調査では、解放以後日本キリスト教リーダーたちによって強調された清貧思想と小さい教會中心の質的成長の強調が教會の停滯要因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結論的に、韓國の物質的祝福や量的成長、あるいは日本の清貧な生活と質的成長の強調からくる文化的な差を克服するためには日本人の文化的な感性を尊重しながら韓國人の高い靈性を活用できる長期的な戦略が必要であろう。

キーワード：韓日宣教、日本教會、量的成長、質的成長、清貧思想、停滯要因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